주정국(朱廷國) 목사

주정국 목사(1938년)
평북 구성군 방현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
[출처: Tokyo Christian]

주정국(朱廷國) 목사는 경성성서학원에서 이인범 목사의 1~2년 선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인범 목사가 1917년에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하여 김상준 목사에게 배우고 1920년에 졸업한 뒤 곧바로 목회에 나선 것과 달리, 주정국은 이미 1919년에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동항리 34번지 성결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한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조선총독부 관보 제2153호 14면). 나이는 이인범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 관보에 따르면, 주정국은

1919년 9월 23일 안성군 양성면 동항리 성결교회 포교계 신고,

1920년 12월 9일 부산부 초량동 성결교회로 포교계 신고,

1922년 5월 10일 김해군 생림면 봉림리 성결교회로 거주지 이전 신고,

1927년 1월 27일 충남 연기군 조치원면 조치원리 39번지 조치원 성결교회 포교소 설치 및 담임자 신고,

1927년 8월 10일 부강리에서 조치원리로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조치원 성결교회 목회를 끝으로 1928년 2월 24일 포교 폐지계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신고 되었다. 이어 5월 4일에는 조치원 성결교회 포교담임자가 주정국에서 김동훈으로 변경 신고 되었다.

그러나 주정국이 성결교회를 떠난 이유와 이후 약 5년간의 행적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이 공백기를 지나 그는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Christian Churches) 소속 독립 선교사 윌리엄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이 이끄는 요츠야 선교부(Yotsuya Mission) 산하 심천조선기독교회(후카가와 한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제3대 목사로 부임하였다. 이 교회는 이인범이 거의 개척하다시피 하여 다년간 시무했던 곳으로, 주정국은 1935년 초 이인범·채호의 뒤를 이어 부임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49세였으며, 부인과 외아들을 두고 있었다. 도쿄에 언제부터 거주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경성성서학원의 후배인 이인범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커닝햄은 이인범을 '조선의 여호수아'라고 부를 정도로 신뢰하고 있었다.

도쿄 심천조선기독교회에서 목회하던 중 주정국은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고, 도쿄로 돌아온 직후 신의주에 교회를 개척할 뜻을 밝히며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도쿄 크리스천, 1937년 5월호). 그는 그해 평안북도 신의주 기독교회로 옮겨갔다.

한편 1937년에는 커닝햄이 '조선의 갈렙'이라 칭한 이원균 목사가 평북 구성군 방현면 하단동 방현기독교회 담임을 사임하고 도쿄 삼하도조선기독교회로 부임하였다(도쿄 크리스천, 1937년 1월호). 그 대신 방현기독교회에는 48세의 김성산 목사가

1937년 4월 부임하였는데, 이는 이원균의 추천과 조선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 이인범의 추인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도쿄 크리스천, 1937년 6월호). 그러나 김성산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자(도쿄 크리스천, 1937년 12월호) 주정국이 대신 담임을 맡게 되었고, 이는 1938년 4월호에 기록되어 있다. 주정국은 1938년 초 방현기독교회에 부임할 당시 목회 경력 20년차였다.

그는 1938년 8월 방현교회에서 특별집회를 열어 많은 결신자를 얻었고, 9월에는 서울에서 신의주 기독교회 개척을 위한 모금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후 <도쿄 크리스천>은 더 이상 그의 행적을 언급하지 않는다.

주정국이 방현기독교회에서 언제까지 시무했는지는 알 수 없다. 1938년 이후 한국 교회들은 동방요배·신사참배·일본기독교조선교단 통합 강요 등 극심한 탄압을 받았고, 방현기독교회처럼 규모가 큰 교회는 더욱 피해를 피하기 어려웠다. 1941년 4월 1일 시행된 종교법으로 일본과 한국의 교회들은 1941년분 후원금을 일시불로 받은 뒤, 1942년부터는 해외 후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해 말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선교사들이 모두 철수하였고, 1947년까지 최소 5년간 모든 선교부가 폐쇄되면서 미자립교회들은 문을 닫거나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성결교회는 1943년 12월 31일 포교(관리자) 폐지계가 신고 되었고, 기독교회(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총회)는 그보다 6개월 후인 1944년 6월 30일에 포교 폐지계가 신고 되었다. 이 기록만으로도 당시 교회들이 겪은 시련을 짐작할 수 있다.

주정국의 행적이 다시 드러난 것은 류재하 목사가 <한국 성결신문>(2019.02.13)에 게재한 “성전건축 필요시마다 부임한 건축가 목사(1)”와 홍성훈 목사의 댓글을 통해서였다. 이에 따르면 주정국은 1941년경까지 창신동 성결교회 담임목사였으며, 1941년에 신설리감리교회(현 보문제일감리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홍성훈은 “주정국 목사는 경성성서학원을 입학하기 전인 1916년에 신설리기도처(이후 신설리감리교회=現 보문제일감리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였습니다. 무슨 이윤지는 모르겠지만, 1941년에 자신이 개척했던 곳이자 일종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신설리감리교회로 잠시 갔다 왔습니다.”고 기록하였다.

참고문헌

Tokyo Christian, Apr.1935; May.1937; Dec.1937; Apr.1938; Nov.1938; 「조선총독부관보」 1919.10.14.; 1921.4.12.; 1922.7.17.; 1927.6.16.; 1927.9.29.; 1928.6.13.; 1928.7.5.; 1941.4.2.; 1944.2.19. 1944.10.10.; 1944.12.6.; 1945.1.23.; 『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6: http://kccs.info/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pdf);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쿰란출판사, 2018);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7: http://kccs.info/그리스도의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조동호, 도서출판 끌림, 2023). 류재하 목사, “성전건축 필요시마다 부임한 건축가 목사(1)”, <한국 성결신문> [입력 2019.02.13]